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예측요인: 만 1세 영아기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Predictors of Preschooler Readiness for Elementary School: Focusing on Attachment and Effortful Control at Age 1

문영경¹ 장혜주²

Young Kyung Moon¹ Hye Ju Jang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o explore the effects of mother-child attachment and effortful control at age 1 on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at age 6, and secon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 child's effortfu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t age 1 in relation to school readiness at age 6.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5 five-year-old toddlers(106 boys, 99 girls) recruited for the Korea Child Panel Study. Mother-child attachment was assessed using the Attachment Q-sort(Waters, 1989).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was measured by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was measured by the School Readiness Scale Murphey & Burns, 2002).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sults: First, mother-child attachment at age 1 effected school readiness at age 6. Effortful control at age 1 effected school readiness at age 6. Second, effortful control at age 1 mediated the effect of mother-child attachment at age 1 in relation to school readiness at age 6.

Conclusion/Implications: Mother-child attachment at age 1 affects school readiness at age 6,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at age 1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in relation to school readiness at age 6.

key words attachment, effortful control, school readiness, preschoolers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¹ 제1저자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조교수

²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외래교수

(e-mail : hyeju333@hanmail.net)

I. 서론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아에게 전이시키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 초등학교 전이시기

는 유아에서 학령기 아동으로의 지위, 역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며, 많은 발달과업에 직면한다. 또한 초등학교 전이시기의 긍정적인 학교적응 여부는 유아의 추후 초등학교 생활 전반의 적응과 수행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ughes, 2011). 학교에 대한 준비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서 기대하는 수준만큼 달성하기가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한 유아는 학업 성취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Maxwell & Clifford, 2004). 따라서 유아에게 전이시기의 새로운 학교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는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령 전 유아의 학교에 대한 준비는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로 개념화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학교준비도는 문해능력, 수개념과 같은 초기학습능력과 교실에서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Parker, Boak, Griffin, Ripple, & Peay, 1999). 학교준비도의 의미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학습능력과 더불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포함하는 것으로(Crnicek & Lamberty, 1994), 학습태도, 의사소통능력, 인지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Murphey & Burns, 2002)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Kagan, Moore, & Bredekamp, 1995).

학교준비도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낮은 학교준비도 수준을 보이는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지속적으로 학업문제 및 부적응 문제를 드러냈다(Entwisle, Alexander, & Olson, 2005; Pears, Carpenter, Kim, Peterson, & Fisher, 2018). 또한 유아기의 학교준비도 수준은 초등학교에서의 사회·정서발달 및 학업성취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인기의 교육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et al., 2007; Fothergill et al., 2008).

이에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정서조절과 인지조절능력 및 성과 같은 개인내적 특성(박윤조, 송하나, 2018; 임경령, 이지현, 2016; Carlos, Eisenberg, Spinrad, Thompson, & Kupfer, 2013; Eisenberg et al., 2010; Maxwell & Clifford, 2004)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학습관여, 문해환경을 포함한 가정환경(이수현, 황혜정, 2014; 조경진, 2014)과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임정진, 20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 중 유아의 학교준비도에는 유아의 가장 인접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Maxwell & Clifford,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형성하는 주양육자와의 관계, 즉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안정성은 이후 유아기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애착 이론에서는 영아가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나 민감하지 않고 반응적이지 않은 양육을 경험한 영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Belsky & Fearon, 2002). 이러한 세상에 대한 관점은 영아의 내적표상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영아에게 내재되어 이후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게 된다. 또한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적극적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 하듯 초기 안정애착과 이후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Belsky와 Fearon(2002)은 만 18개월 시기 안정애착을 보인 영아는 만 3세 시기 언어발달,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정 애착을 보인 영아는 이후 언어발달,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Arend, Gove 그리고 Sroufe(1979)는 안정 애착을 보인 영아가 장난감을 탐구할 때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이러한 발달적 특성이 4~5세 유아기의 문제해결의 효율성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인지발달 특성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Ijzendoorn 과 Vliet-Visser(1988)는 3세 시기 애착안정성과 6세 시기의 인지발달 수준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는 아동이 문제해결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며, 낮은 상황에서 아동에게 충분한 반응성을 보임으로서 아동이 문제해결과제를 안정된 상태에서 몰두하고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여 영아기 애착은 유아기의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 애착안정성은 이후 청소년기 시기 학업성취(Dindo et al., 2017)와 초기 학교생활의 읽기능력(Laibel, Carlo, Davis, & Karahuta, 2016)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의 경우 고경애(1984)는 안정 애착아가 성취동기와 호기심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김선영과 김희진(2014)는 만 1세 시기 측정된 애착안정성이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영아기 형성한 애착안정성은 영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사회·정서적 적응 및 인지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영아기에 측정된 영아의 애착안정성은 이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초기 영아기 애착안정성이 유아기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관계를 확인한 여러 연구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확인된 바 생애 초기부터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이후 유아기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내적 특성 중 영아기에 측정된 의도적 통제능력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의도적 통제는 자기조절의 핵심 요소로서, 의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은 억제하고, 반대로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의나 행동을 통제하는 주의 실행기술의 효율성(Rothbart & Bates, 2006)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Posner & Rothbart, 2000),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여 정서의 내적 경험을 조절하거나, 충동이 일어날 때 행동을 억제하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하거나 행동을 활성화하여 정서의 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othbart & Bates, 2006). 따라서 의도적 통제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정서의 자기조절능력(Rothbart & Bates, 2006)이라 볼 수 있다. 의도적 통제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환경적 자극에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낮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는 등 적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즉, 의도적 통제는 아동의 충동과 욕구를 조절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osner & Rothbart, 2000).

의도적 통제는 만 1세 이전에 이미 개인차를 보이며(Putnam & Stifer, 2002), 이후 만 4세까지 빠르게 발달하여, 이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안정적인 경향성을 보인다(Kochanska & Knaack, 2003). 예를 들어, 18개월에서 22개월 경 측정된 의도적 통제는 같은 시기와 이후 만 5세와 만 6세의 양심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nrad et al., 2007; 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Kochanska & Knaack,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영아기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이후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의도적 통제는 사회·정서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적 지표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도적 통제를 잘하는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를 잘 돕거나 친절하게 대하며(Valiente, Lemery-Chalfant, & Castro, 2007),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며,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잘 마무리하며, 집단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며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영경, 201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경, 2014b). 반면 의도적 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기 쉬웠으며(Deater-Deckard, 2001),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행동하지 못하거나(Eisenberg et al., 2001),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 Burgess, 2001). 또한 의도적으로 주의와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수학적 능력 및 인지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배율미, 조광현, 2018; 임경령, 이지현, 2016), 학령기의 수학 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wanson, Valiente, Lemery-Chalfant, Bradley, & Eggum-Wilkens, 2014). 또한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는 청소년기 이후의 학업 성취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ndo et al.,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영아기에 측정한 의도적 통제 능력의 개인차는 이후 유아기 시기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인지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지표인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영아기 의도적 통제와 이후 유아기 시기의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검증해 본 연구는 없어 이에 이러한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의도적 통제능력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변화된 의도적 통제의 매개적 역할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애착 안정성과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해서 Sroufe(2005)는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양육자와 영아 간의 정서의 상호 조절 과정을 정서조절로 간주하고, 생애 첫해에는 영아와 양육자와의 상호 조절을 통해 영아가 정서를 조절하며, 걸음마기에는 양육자의 조력 하에 정서를 조절하며, 유아기에는 정서조절을 내재화하여 스스로 조절한다고 설명하여,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경험이 영아 및 유아의 위협받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영아의 정서적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자녀의 자율적 조절능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의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의도적 통제능력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영아기부터 발달되는 의도적 통제능력은 이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도 예측할 수 있다.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 유아의 학교준비도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는 없지만, 일부 연구는

유사한 개념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Dindo 등(2017)은 18개월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12년 후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의도적 통제가 애착안정성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애착안정성은 정서와 자기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해로서는 어떻게 애착안정성이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기의 관계가 어떻게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고 만 6세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부모와 자녀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여 추후 학업적 중재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는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은 같은 시기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하여 이후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 2009년 심층조사에 포함된 유아 205명(남아 106명 51.7%, 여아 99명 48.3%)이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2008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포함한 2,078개 가구를 대상으로 1년을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패널의 70.9%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종단 자료는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단자료 수집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비율의 결측치는 모두 제거하면 편추정치(biased estimate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Arbuckle, 1996; Peugh & Enders, 2004), 두 시점 중 1시점에라도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시점과 만 6세 시점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2차년도(만 1세 시점)에서 심층조사에 포함된 전체 유아 20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 유아는 2차년도 조사(만 1세 시점)에는 조사에 모두 응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만 6세 시점)에는 150명(남아 80명 53.3%, 여아 70명 46.7%)이 조사에 응하여 73%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대상 유아의 연령의 범위는 만 1세 시기(T1) 12개월에서 16개월(평균 13개월), 만 6세 시기(T2) 72개월에서 79개월(평

균 74.86개월)이었다. 만 1세 시기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4.68세, 어머니가 평균 32.30세로, 아버지의 경우, 30대가 158명(77.0%), 어머니의 경우 30대가 156명(7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 95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졸이 91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 종사자가 62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35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0명(14.6%), 사무 종사자가 24명(11.7%) 순이었다.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201만원-300만원 미만이 53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301만원-400만원 미만이 46명(22.4%), 101만원-200만원 미만이 36명(17.6%)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만 1세 영아기 애착안정성

애착안정성은 Waters(1997)가 개발한 애착 행동 Q Set (Attachment Behavior Q-set)을 이영, 박경자 그리고 나유미(1997)가 번안 및 준거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애착 행동 Q set은 어머니와의 대인면접을 통해 90개의 카드를 2단계를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 영아와의 애착안정성을 분류한다. 카드의 분류 단계는 (1) 각 카드에 대해 영아와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많이 일치하는’, ‘보통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음’의 3단계로 분류한 후 위의 분류한 각각의 한 묶음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세 묶음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준거 점수와 의 상관점수를 통해 애착안정성을 측정한다.

2)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는 Putnam 등(2006)이 개발한 유아기 행동 척도(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중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해당하는 주의집중(Attention focusing),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ing),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의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의도적 통제를 질문지로 분석할 때에는 많은 경우 주의전환과 주의집중을 주의조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포함시킨다(Eisenberg et al., 2005;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또한 Posner와 Rothbart(2000)는 주의전환과 주의집중을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로 명명하여 의도적 통제의 중심 구성요인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의집중은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잘 유지하는 능력, 주의전환은 과제를 할 때 주의를 유연하게 잘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억제통제는 지시에 따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평소 영아가 보인 행동에 대해 ‘해당없음’의 0점부터 ‘항상’의 7점까지의 8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 척도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과 주의전환, 억제통제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36, .39, .67으로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의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을 합한 변인을 주의조절로 명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의조절과 억제통제의 요인부하량은 .60와 .59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주의조절 .65, 억제통제 .77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3)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Murphey와 Burns(2002)가 학교준비도 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위의 도구를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문항을 확정하였다. 학교준비도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 척도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발달질문에 대해 교사가 응답한 문항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사회정서발달 .86, 학습에 대한 태도 .86, 의사소통 .82,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77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92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IBM Co.)과 AMOS 18.0(IBM C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통계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후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χ^2 지표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검증된 변인간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종단자료 수집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비율의 결측치는 모두 제거하거나 평균대체를 하는 listwise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편추정치(biased estimates)가 발생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를 제공하여 모집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완전정보 최대추정치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결측자료의 최대정보를 확보하였다(Arbuckle, 1996; Peugh & Enders, 2004).

Ⅲ. 결과 및 해석

1.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와 유의한 관련($r = .19 \sim .2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학령 전이기의 학교준비도 중 의사소통($r =$

.18, $p = .05$),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r = .2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사회정서발달과 학습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만 1세 영아기의 주의조절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소와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 = .18 \sim .21$), 만 1세 영아기의 억제통제와 학령 전이기의 학교준비도 사회정서발달($r = .26, p = .01$), 의사소통($r = .22, p = .01$),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r = .1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만 1세 영아기의 억제통제와 학습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 의도적 통제와 학령 전이기의 학교준비도는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탐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205)

변인	1	2	3	4	5	6	7
1.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	1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							
2. 주의조절	.19**	1					
3. 억제통제	.22***	.36***	1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4. 사회정서발달	.13	.18*	.26***				
5. 학습에 대한 태도	.16	.21***	.16	.65***	1		
6. 의사소통	.18*	.22**	.22**	.64***	.71***	1	
7.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23**	.21*	.18***	.50***	.66***	.68***	1
평균	.41	92.79	29.49	21.07	27.42	10.66	18.46
표준편차	.21	12.27	8.76	2.47	4.08	1.51	1.79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의도적 통제와 학교준비도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애착안정성은 단변인으로 구성되어 측정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 = 10.26(df = 8, p = .25)$, CFI = .99, NFI = .97, TLI = .98, RMSEA = .04(.00~.10), $\chi^2/df = 1.28$ }.

3. 총효과모형의 검증결과

1) 만 1세 영아기 애착안정성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만 1세 영아기 애착안정성에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로의 직접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 = 7.85(df = 5, p = .17)$, CFI = .99, NFI = .98, TLI = .97,

RMSEA = .05(.00~.12), $\chi^2/df = 1.57$ } .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은 학령 전이기의 학교준비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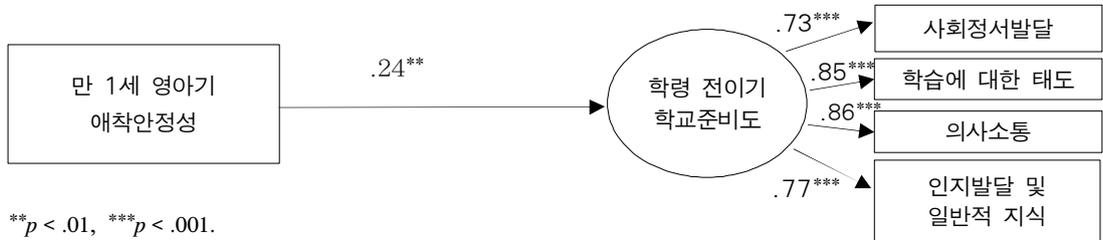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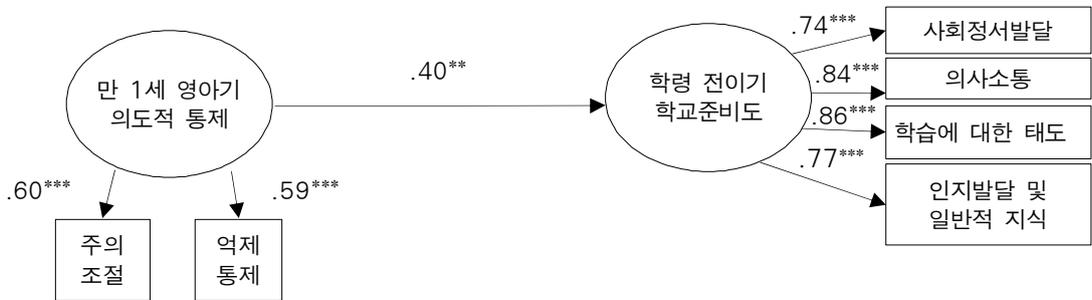


그림 1. 만 1세 영아기 애착안정성에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로의 직접모형

2)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가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에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로의 직접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 = 10.26(df = 8, p = .25)$, CFI = .99, NFI = .97, TLI = .98, RMSEA = .04(.00~.10), $\chi^2/df = 1.28$ } . 따라서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는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p < .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과정은 학령 전이기 학교준비도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p < .001$

그림 2.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에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로의 직접모형

4. 매개모형의 검증결과

만 1세 영아기 애착 안정성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Hoyle와 Smith(1994)의 접근법에 따라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3.30(df = 13, p = .43)$, CFI = 1.00, NFI = .96, TLI = 1.00, RMSEA = .02(.00~.07), $\chi^2/df = 1.02$ 이며, 부분매개모형은 $\chi^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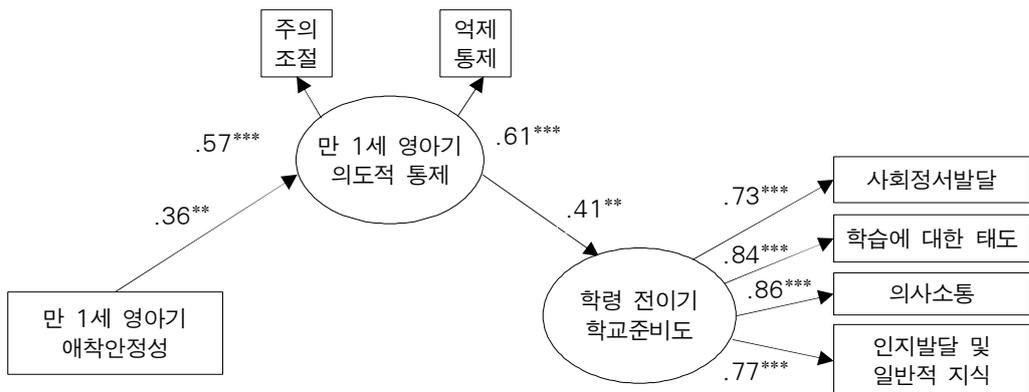
12.70($df = 12, p = .39$), CFI = 1.00, NFI = .97, TLI = 1.00, RMSEA = .02(.00 ~ .07), $\chi^2/df = 1.06$ 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완전매개모형이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2.33$ 으로 임계치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가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과정은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의 13%를 설명하며, 학령 전이기 유아 학교준비도의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추정결과

Path	β	<i>B</i>	<i>S.E</i>	C.R	<i>P</i>
만 1세 영아기 애착안정성 →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	.36	11.94	3.53	3.38	.00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 →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46	.11	.04	3.19	.00

표 3.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의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Path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 →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	.36	-	.36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 →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	.16	.16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 →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46	-	.46



** $p < .01$, *** $p < .001$.

그림 3. 만 1세 영아기 의도적 통제에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로의 간접모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적 통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 심층조사에 포함된 20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은 학령 전이기인 만 6세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부터 형성하는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유아기와 이후의 사회·정서적 적응 및 의사소통, 인지발달,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의 학교생활의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기 애착안정성이 유아기의 언어발달,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였다는 Belsky와 Pasco Fearon(2002)의 연구와 영아기에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유아기에 인지발달이 뛰어나다는 Arend 등(1979)의 연구와 Ijzendoorn 등(1987)의 연구와 일관하며, 부모와의 애착이 초기 학교생활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aibel et al., 2016)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영아기 애착이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한다는 연구(Dindo et al., 2017)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같은 시기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선영과 김희진(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이 유아기, 학령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보여지며, 바람직한 학교준비도를 위해서는 영아기 부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자녀는 학령기 이후 학교생활에도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영아가 신뢰감과 친밀감,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생애 초기부터 영아기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는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마기 의도적 통제가 이후 사회·정서적 적응 및 양심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Kochanska et al., 2000; Kochanska & Kaack, 2003; Spinrad et al., 2007)과 걸음마기 의도적 통제가 이후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였다는 연구(Swanson et al., 2014)와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의도적 통제가 수학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능력을 예측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배울미, 조광현, 2018; 임경령, 이지현, 2016).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영아기 부터 보이는 의도적 통제의 개인 차이는 이후 학령전기의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을 포함한 학교준비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 생애 초기 영아기 시기 출현하는 의도적 통제는 이후 시기 즉, 유아기까지의 사회·정서적 적응 및 인지발달을 포

함한 다양한 발달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영아기의 주의 및 행동적 조절을 포함한 의도적 통제능력의 개발을 통해 이후 시기의 사회·정서적 적응 및 인지 능력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의도적 통제 능력의 향상이 시도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인지 능력이 향상됨이 증명되었다(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Diamond, Barnett, Thomas, & Munro, 2007). 그러나 아직까지 의도적 통제 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은 미흡하며,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분석도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에는 영아를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의도적 통제가 만 6세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학령기 아동의 학업적응과 초등학교 이후의 학업성취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Swanson 등(2014)이 의도적 통제가 학령기의 수학능력을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Dindo 등(2017)은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청소년기 이후의 학업 성취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도 영아기 애착이 학령기 이후의 학업성취와 사회·정서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영아기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주의와 행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Sroufe(2005)의 주장과 애착안정성이 청소년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걸음마기 의도적 통제가 매개 역할을 하였다고 밝힌 Dindo 등(201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는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연결짓는 기제로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유아에게 의미있는 사회적 환경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이되는 시기인 학령 전이기의 학교준비도에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은 영아기 시기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한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내적인 특성인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의 변화에 의해 학교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부터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습 및 학교생활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며(Rothbart & Bates, 2006),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Kochanska, 2001). 또한 영아기의 가정환경은 영아의 뇌발달 및 생리적 발달을 포함한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avies & Sturge-Apple, 2007; Hane & Fox, 2006).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환경적 요인인 부모-자녀 간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기질적 특성인 의도적 통제능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이후 유아기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하였던 영아기 부모-자녀관계의 증진 및 안정애착 형성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조기 시행이 유아기와 이후 학령기 학교생활적응 및 이후 학업성취를 포함한 인지적 성취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영아기 애착안정성의 증진을 통해 앞서 언급하였던 의도적 통제 능력이 증진될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영아의 의도적 통제능력 향상과 함께 나아가 이후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일 수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하였던 의도적 통제능력중심의 영아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애착 중심의 부모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영아의 의도적 통제 능력과 전반적 발달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검증하며,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 여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사회·정서 및 인지를 포함한 전인적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만 1세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능력과 애착안정성의 역할을 규명하여 영아기의 애착 안정성과 의도적 통제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밝혀내어 영아기 가정환경의 영향력과 개별 영아의 내적 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 연구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영아기의 애착안정성,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학교준비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단적 관계를 통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 애착 안정성이 영아의 의도적 통제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환경적 맥락 안에서 사회·정서적으로 적응된 행동과 학습, 문제해결, 인지적 발달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학교준비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영유아기의 조절능력의 중재를 통해 학교준비도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의 학교준비도 수준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 및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교육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Duncan et al., 2007; Fothergill et al., 2008)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준비도는 유아의 학교 입학 단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영아기의 애착안정성, 의도적 통제가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이되는 과정의 초기 청소년기 학업성취 및 사회·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단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출생에서 12년 동안의 성장과정을 장기 추적 조사한 것으로 청소년시기에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기에 제한점이 있어 이후 변화에 따른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영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학교준비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나, 아버지 및 보육교사 등 다른 성인과의 애착을 형성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른 성인과의 애착안정성이 의도적 통제 및 학교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애착안정성이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즉 중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이 20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수집된 것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구된 변인들의 특성은 가정환경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그 관계도 저소득층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가정환경의 영아와 부모를 표집하여 가정환경에 따라 관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영아의 애착안정성이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성별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으며(Liew, McTigue, Barrois, & Hughes, 2008), 일부 연구들은 성별 차이가 없다고 밝혀(Valente et al., 2007) 이후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과정에 성별이 중재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이후 학령 전이기 유아의 학교준비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중 영아기와 유아기를 잇는 부모와 자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영아기의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 봄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영아기의 애착과 추후 학령 전이기의 학교준비도를 연결짓는 기제로 의도적 통제가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 추후 학령기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영아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애 (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김희진 (2014). 영아의 기질, 어머니-자녀 간 애착,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애착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4**(5), 31-54.
- 김재희, 김현경 (2017). 초기 청소년의 의도적 통제가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와 남녀집단 차이. **아동학회지**, **38**(5), 33-46. doi:10.5723/kics.2017.38.5.33
- 문영경 (2014).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생활과학회지**, **23**(1), 15-29.

- 문영경 (2014b). 유아의 의도적 통제,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367-386.
- 박윤조, 송하나 (2018).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인지조절 및 정서조절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1), 27-51. doi:10.21213/kjceec.2018.18.1.27
- 배을미, 조광현 (2018).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정서적 반응성과 기초학습 능력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2**(1), 275-295.
- 이수현, 황혜정 (2014). 유아의 성과 주변 환경 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학습참여, 교사의 지도방법 및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77-203. doi:10.14698/jkce.2014.10.4.177
-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임경령, 이지현 (2016).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5), 261-283. doi:10.18023/kjece.2016.36.5.011
- 임정진 (2013). 어린이집의 질이 빈곤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진 (2014).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rend, R., Gove, F. L., & Sroufe, L. A. (1979).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0*(4), 950-959. doi:10.1111/j.1467-8624.1979.tb02454.x
- Belsky, J., & Fearon, R. M. P. (2002). Early attachment security, subsequent maternal sensitivity, and later child development: Does continuity in development depend upon continuity of caregiving?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3), 361-387. doi:10.1080/14616730210167267
- Bernier, A., Carlson, S. M., & Whipple, N. (2010).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1*(1), 326-339. doi:10.1111/j.1467-8624.2009.01397.x
- Cmic, K., & Lamberty, G. (1994). Reconsidering school readiness: Conceptual and applied perspectiv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5*(2), 91-105. doi:10.1207/s15566935eed0502_2
- Davies, P. T., & Sturge-Apple, M. L. (2007). Advances in the formulation of emotional security theory: An ethologically based perspective.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5*, 87-137. doi:10.1016/b978-0-12-009735-7.50008-6
- Diamond, A., Barnett, W. S., Thomas, J., & Munro, S. (2007). The early years: Preschool program improves cognitive control. *Science*, *318*(5855), 1387-1388. doi:10.1126/science.1151148
- Deater-Deckard, K. (2001). Annotation: Recent research examining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in the

-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5), 565-579. doi:10.1111/1469-7610.00753
- Dindo, L., Brock, R. L., Aksan, N., Gamez, W., Kochanska, G., & Clark, L. A. (2017). Attachment and effortful control in toddlerhood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over a decade later. *Psychological Science*, 28(12), 1786-1795. doi:10.1177/0956797617721271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et al.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doi:10.1037/0012-1649.43.6.1428
- Eisenberg, N., Vidmar, M., Spinrad, T. L., Eggum, N. D., Edwards, A., Gaertner, B., et al. (2010). Mothers' teaching strategies and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294-1308. doi:10.1037/a0020236
- Eisenberg, N., Valiente, C., & Eggum, N. D. (2010). Self-regulation and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1(5), 681-698. doi:10.1080/10409289.2010.497451
- Entwisle, D. R., Alexander, K. L., & Olson, L. S. (2005). First grad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22: A new st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5), 1458-1502. doi:10.1086/428444
- Fothergill, K. E., Ensminger, M. E., Green, K. M., Crum, R. M., Robertson, J., & Juon, H. S. (2008). The impact of early school behavior and educational achievement on adult drug use disorders: A prospective stud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2(1-3), 191-199. doi:10.1016/j.drugalcdep.2007.08.001
- Hane, A., & Fox, N. (2006). Ordinary variations in maternal caregiving influence human infants' stress reactivity. *Psychological Science*, 17(6), 550-556. doi:10.1111/j.1467-9280.2006.01742.x
- Hoyle, J. J., Smith, F. T. (1994). On finite-time break-up in three-dimensional unsteady interacting boundary layers. *Proceedings: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447(1), 467-492. doi:stable/52443
- Hughes, C. (2011). *Social understanding and social lives: From toddlerhood through to the transition to school*. London, UK: Psychology Press. doi:10.4324/9780203813225
- Ijzendoorn, M. H. V., & Vliet-vissen, V.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in infancy and IQ in kindergart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9(1), 23-30. doi:10.1080/00221325.1988.10532135
- Kagan, S. L., Moore, E., & Bredekamp, S. (1995). *Reconsidering children's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Toward shared beliefs and vocabulary*.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doi:10.1037/0012-1649.36.2.220
-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

- 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doi:10.1111/1467-6494.7106008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91. doi:10.1111/1467-8624.00366
- Laibel, D., Carlo, G., Davis, A. N., & Karahuta, E. (2016). Maternal sensitivity and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s of peer group affiliation and 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52(6), 922-932. doi:10.1037/dev0000118
- Liew, J., McTigue, E. M., Barrois, L., & Hughes, J. N. (2008). Adaptive and effortful control and academic self-efficacy beliefs on literacy and math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on 1st through 3rd grad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4), 515-526. doi:10.1016/j.ecresq.2008.07.003
- Maxwell, K. L., & Clifford, R. M. (2004). Research in review: School readiness assessment. *Young Children*, 59(1), 42-46.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 Olson, S. L., Sameroff, A. J., Kerr, D. C., Lopez, N. L., Wellman, H. M.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1), 25-45. doi:10.1017/S0954579405050029
- Parker, F. L., Boak, A. Y., Griffin, K. W., Ripple, C., & Peay, L. (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13-425.
- Pears, K. C., Carpenter, L., Kim, H. K., Peterson, E., & Fisher, P. A. (2018). The kids in transition to school program. In A. J. Mashburn, J. LoCasale-Crouch, & K. C. Pears (Eds.), *Kindergarten transition and readiness* (pp. 283-302). Cham, Switzerland: Springer. doi:10.1007/978-3-319-90200-5_13
- Peugh, J. L., & Enders, C. K. (2004). Missing data in educational research: A review of reporting practic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4), 525-556. doi:10.3102/00346543074004525
- Posner, M. I., Rothbart, M. K. (2000). Developing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2(3), 427-441. doi:10.1017/s0954579400003096
- Putnam, S. & Stifer, C. (2002). Development of approach and inhibition in the first year: Parallel findings from motor behavior, temperament ratings and directional cardiac response. *Developmental Science*. 45(2), 441-451.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Development*,

- 29(3), 386-401. doi:10.1016/j.infbeh.2006.01.004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ley.
- Silva, K. M., Spinrad, T. L., Eisenberg, N., Sulik, M. J., Valiente, C., Huerta, S., & Wilson, S. B. (2011).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to school attitudes in a low-income sampl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2*(3), 434-460. doi: 10.1080/10409289.2011.579046
-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et al. (2007). Relation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70-1186. doi:10.1037/0012-1649.43.5.1170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doi:10.1080/14616730500365928
- Swanson, J., Valiente, C., Lemery-Chalfant, K., Bradley, R., & Eggum-Wilkens, N. D. (2014).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effortful control, and math achievement in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85*(5), 1932-1947. doi:10.1111/cdev.12260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Castro, K. S. (2007).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academic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school liking. *Merrill-Palmer Quarterly, 53*(1), 1-25. doi:10.1353/mpq.2007.0006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논문투고: 19.04.15
수정원고접수: 19.05.10
최종게재결정: 19.05.27